

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

1. 과 제 명: 저작권 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저작권 보호 홍보·교육 추진 전략 연구
2. 일 시: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10:00~12:00
3. 장 소: 보호원 회의실
4. 참석위원: 박경신 교수, 변민주 교수, 유재근 교수, 이용일 부장, 홍훈기 과장
5. 회의내용 및 결과

o 회의 결과: 적격

o 주요 논의사항

- 과업지시서에서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 추진 전략임. 현재 저작권보호원의 홍보와 교육 부분을 보면, 보호원의 교육과 홍보는 전통적인 수준임. 보고서를 보완해 가면서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담아내야 할 것. 보호원은 현재까지 캠페인성 홍보를 많이 추진했는데 장르별로 다른 특성들은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만화 웹툰은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많은데, 웹툰을 많이 이용하고 불법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매체 전략들을 젊은 타겟층을 잡아야 할 것임. SWOT 분석과 RAW DATA를 분석해서 보고서에 담는 것이 좋겠음.
- 보호원의 연차보고서에는 5개 분야 이외에도 대학교재에 대한 부분도 있음.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임. 다른 장르에서도 침해 인식이 심각하다는 정도로 추가하면 연구가 풍부해질 것으로 보임. 시각 사진 이미지의 침해도 심각한 수준인데, 시각적 분야도 보충을 하는 것이 저작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것임.
- 제안사는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FGI의 실행경험은 충분함.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1~2시간이 적합한데,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1:1 심층인터뷰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인 20명의 FGI는 많은 것은 아닌지? 긴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홍보와 RAW DATA 분석, FGI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RAW 데이터는 일반인들의 이용 행태임, 저작권 침해 사례는 산업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장르별 사례들, 영국과 호주에서의 이용자 차원의 홍보를 수집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실제 침해 사례를 뽑아내서 교육과 홍보 전략 수립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르별 타게팅이 중요함. 10대의 경우 영화는 돈을 주고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웹툰은 왜 돈내고 봐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장르별 홍보 전략은 8개 장르로 보호원과 합의를 하여 진행을 하되, 인터뷰를 할 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교육분야와 홍보분야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만화 웹툰 쪽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창작자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나 영화와 음악 장르는 다른 부분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할 수 없고,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6.

평가위원 성명	박 경 신 (서명/인)
평가위원 성명	변 민 주 (서명/인)
평가위원 성명	유 재 근 (서명/인)
평가위원 성명	이 용 일 (서명/인)
평가위원 성명	홍 훈 기 (서명/인)
간사 성명	정 성 희 (서명/인)